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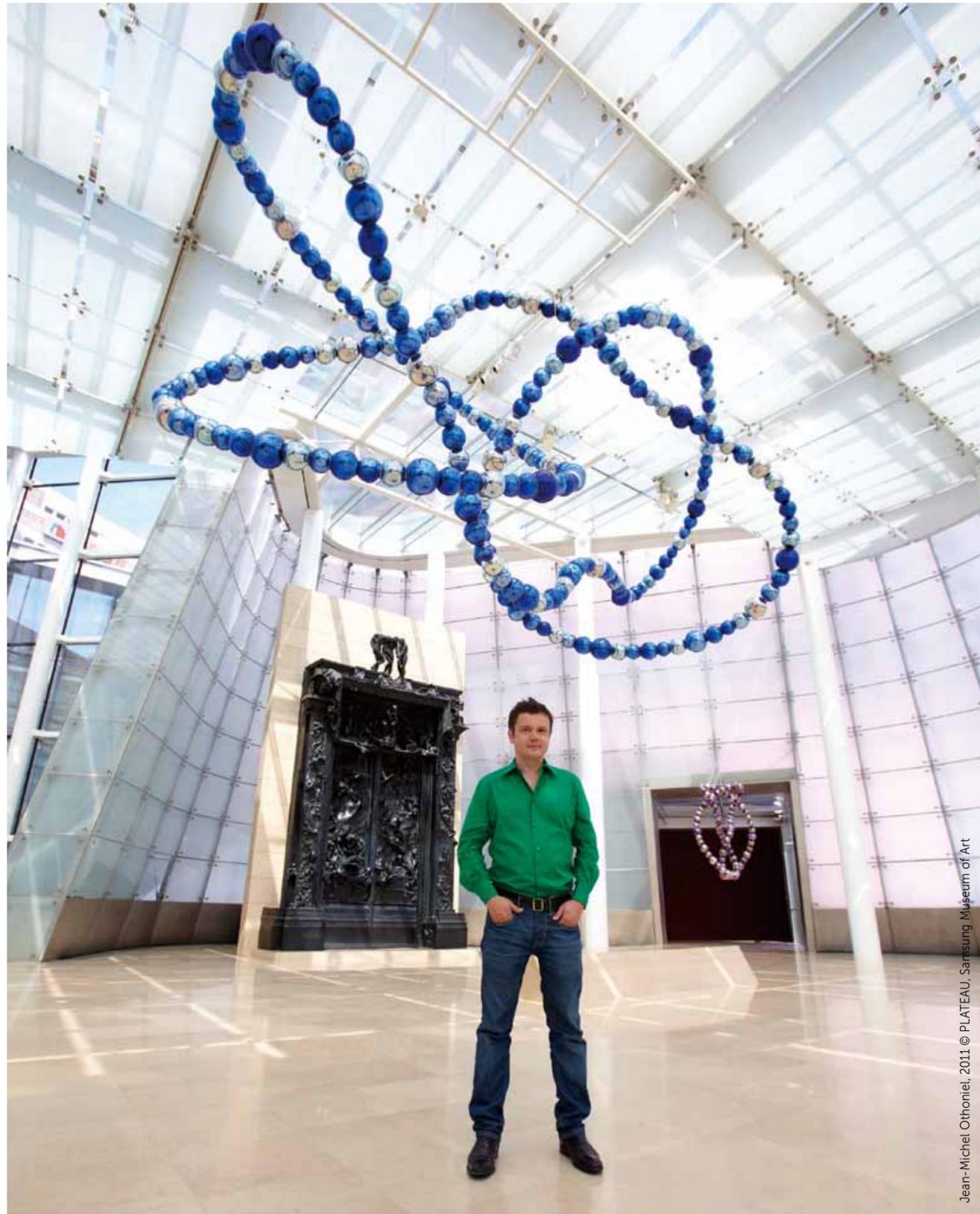
Peony, The Knot of Shame, 118 1/8 x 118 1/8 x 78 3/4 in., 2015, Mirrored glass, stainless steel © 2016 Othoniel / ARS, New York / ADAGP, Paris, Photo by Charles Mayer

BLACK LOTUS

AND LIGHT IN THE DARK

Jean-Michel Othoniel, the French contemporary artist famous for glass installations, will hold a solo exhibit <Black Lotus> at Kukje Gallery until March 27. It will be the first exhibition in Korea in five years, after <My Way> at Plateau, Samsung Museum of Art.





Jean-Michel Othoniel, 2011 © PLATEAU, Samsung Museum of Art

1월의 오후, 마리에 있는 장 미셸 오토니엘Jean Michel Otoniel의 스튜디오를 찾았다. 새하얀 벽과 따뜻한 색감의 나무 바닥, 파리만의 전형적인 회색 지붕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 좋은 스튜디오에서 짙은 남색의 스웨터와 청바지를 입은 오토니엘과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지나간 이야기를 시작했다. 파리에서 그를 종종 마주친 지도 제법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에게 먼저 한국에서의 전시 소식에 대한 축하 인사를 건넸다. 플라토 미술관에서 선보인 개인전 (My Way) 이후 한국에서 열리는 5년 만의 개인전이다. 우선 이 전시의 제목이자 대표작인 ‘검은 연꽃 Black Lotus’이 궁금했다. “저의 작품에서 꽃은 매우 본질적이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꽃 속에 감춰진 의미와 상징에 저는 거의 강박적인 집착을 지녔고 이것은 저에게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번 한국 전시에서 선보일 신작들은 연꽃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어요. 그동안 여러 번 한국을 오갔는데, 그때마다 연꽃이 주는 빛과 진실 그리고 성스러운 상징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신작들은 보다 추상적이고 본질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며 사용한 컬러도 검은색, 짙은 보라색과 파란색, 은색 위주입니다.” 오토니엘이 생각하는 ‘검은 연꽃’의 상징은 보들레르의 시집 (악의 꽃)의 상징에서 드러나는 ‘모순어법Oxymoron’과 같다고 그는 덧붙인다. “검은색과 연꽃의 대조는 서로 상반되는 성격의 두 단어를 배합하면서 보다 극적으로 시적이고 낭만적인 비전을 제시합니다.” 결국 오토니엘이 말하는 검은 연꽃의 아름다움은 보들레르가 말한 “세계를 덜 추악하게 하고 시간의 무게를 덜어 주는” 아름다움이고, 이는 세상의 ‘악’과 ‘고통’을 인식하면서 존재와 삶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시인의 세계를 담고 있다.

‘검은 연꽃’은 그간 오토니엘이 해온 구슬 모양 조각들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재료는 기존의 유리가 아닌 산화 처리한 알루미늄으로 제작해 ‘블랙’ 컬러의 존재감을 더욱 강조한 게 특징이다. 오토니엘은 이번 전시를 통해 처음으로 회화 작품을 선보인다. 맑고 순수한 느낌의 수채화를 많이 그리는 그는 처음으로 반짝이는 은빛 캔버스에 매우 두꺼운 질감의 검은 잉크를 이용한 회화 작품에 몰두했다. “이 검은 잉크 그림은 동양의 서예와는 다르지만 한편으로는 서예가 지닌 강한 대조와 역동성 그리고 추상성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는 캔버스를 마주하고 그 위에 붓질을 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내면세계로 더욱 깊이 들어갈 수 있었다고 덧붙인다. 지난해 전 세계 미술계의 주목을 받은 베르사유 궁의 분수 프로젝트는 많은 사람과 함께 분수함 속에서 진행한 대규모 사업이었다. 분명 개인전 준비를 위해서든, 자신의 작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든 조용한 스튜디오에 앉아 캔버스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는 내밀하고 사색적인 시간은 반드시 필요했으리라. 다른 한편으로 베르사유 궁 분수 프로젝트는 그가 세계적 작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영광과 기회를 안겨주었다. 오토니엘은 18세기 무용가 라울 오제르 피에Raoul-Auger Feuillet가 베르사유궁전에서 선보인 무용에 관해 기술한 책에 그려진 무용가들의 움직임의 곡선에서 영향을 받아 ‘아름다운 춤Les Belles Danses’이라는 제목의 분수를 제작했고, 이로써 절대왕정의 상징인 태양왕 루이 14세가 만든 베르사유 궁에는 300년 만에 처음으로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이 영구 설치되었다. 분수 개막식에서 L.A. 댄스 컴퍼니 단원들이 18세기 궁정음악에 맞춰 현대적으로 디자인한 의상을 입고 현대 발레를

선보였고, 오토니엘은 권위적이었지만 일상 예술로 꽃피웠던 베르사유 궁의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됐다. 50대 초반의 나이. 이런 성공이 모든 작가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물론 어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은 작가로서의 운명적 창작 활동이 있었겠지만 정작 본인은 운도 많이 따라주었다면서 수줍게 웃는다. 그러나 무엇보다 오토니엘에게는 그가 지닌 상상력과 작가로서의 사색적 세계를 확장해나갈 수 있었던 환경이 아주 어려서부터 주어졌다. 예술가로 활동하는 가족과 친척이 많은 집안에서 자랐고, 유명한 예술가를 직접 만나기도 했다.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큰 미술관이 있는 생에티엔Saint-Etienne에서 태어나고 자란 오토니엘은 이 미술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작가들을 보면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했으며, 이미 여섯 살 때부터 자신이 예술가의 길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미대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는 사람들이 안고 살아가는 상처를 표현하는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는 다양한 재료와 표현 방식으로 점점 확장됐다. 1980년대 그의 작품은 유화이나 왁스 같은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재료를 이용한 조각 작품이나 설치가 많았고, 1990년대부터 선보인 유리 작품도 초창기에는 형태가 다듬어지지 않은 거칠고 야생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 유리들은 점점 잘 다듬어지고 형태도 규칙적이고 조형적인 완성도를 갖췄는데, 이러한 변화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물었다. “제 작품은 항상 저의 개인적인 삶과 관련이 깊습니다. 초창기 제 작업에는 당시 제 개인적인 고통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과 어원이 같은 ‘황’을 재료로 많이 사용했죠(프랑스어로 ‘황’은 Soufre고, ‘고통’은 Souffrance로 어원이 같다). 역설적이게도 고통을 의미하지만 황



Black Lotus, 150 x 150 x 150 cm, 2015, Black anodised aluminium cast, steel
© Courtesy of Jean-Michel Othoniel studio, Photo by Antoine Cadot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Gold Lotus, 360 x 230 x 180 cm, 2015, Aluminium cast, gold leaves, painted steel
© Courtesy of Jean-Michel Othoniel studio, Photo by Antoine Cadot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Les Belles Danses, Gardens of the Palace of Versailles, 2015 © 2016 Othoniel / ARS, New York / ADACP, Paris, Photo by Philippe Chancel

COOPERATION_KUKJE GALLERY 02 735 8449

은 항상 화려한 빛을 반사하는 재료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설은 제가 유리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했어요. 처음에는 거의 현무암에 가까운 탁함을 지닌 검은 유리로 작업했지요. 그러다가 황에서 볼 수 있는 ‘빛의 요소를 갖춘 투명한 유리들을 사용했고, 컬러도 더 밝고 화려해졌어요. 그런데 이번 한국에서 진행하는 전시에서는 다시 검은 유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둠과 빛의 대조는 제 창작의 역사 속에 늘 존재해 왔어요. 저에게 창작이란 어둠 속에 내재돼 있는 빛을 찾아가는 하나의 긴 여정과 같아요.”

오토니엘의 목에는 항상 붉은색 유리구슬 목걸이가 걸려 있다. 1996년에서 1997년 사이에 로마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목이 잘려 처형당한 세인트 세실이라는 성인의 조각 작품에 있던 상처를 보면서 그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안고 살아가는 상처와 고통을 생각했고, 자신이 존경하던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가 에이즈로 사망했을 때 그를 기리기 위해 여러 작가와 함께 1001개의 빨간 유리 목걸이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더 이상 상처를 감추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럽

게 생각하라는 의미를 담은 ‘상처 있는 목걸이’ Le Collier Cicatrice’라는 작품에 참여한 사람들의 사진과 영상은 2013년 전 세계를 순회한 그의 개인전 (My Way)를 통해 전시됐다. 개인의 상처에서 나아가 집단과 한 사회가 안고 살아가는 상처와 슬픔을 나타낸 작품 중 대표작으로 ‘눈물의 배’ Le Bateau de Larmes’를 꼽을 수 있다. 자유를 찾아 쿠바를 탈출했던 난민들이 만든 배에 유리구슬로 눈물을 표현한 작품이다. 파리지앵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이자 오토니엘 자신도 가장 애착을 느끼는 작품은 단연 팔레 루아얄

Palais Royal 지하철역 입구에 장식한 ‘야행자들의 키오스크’ Les Kiosques de Noctambules’다. 이곳에 설치한 2000년에는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무척 많았는데, 이후 해마다 파리를 찾는 수많은 관광객에게 꿈을 안겨주는 작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토니엘의 역사를 살펴보는 과정은 숨이 차기도 하지만 한 작가가 인류에 대해, 세상에 대해 건네는 아름다운 시를 읽는 순간의 연속이기도 하다. 한국에서의 개인전이 끝나면 그에게 잠시 쉴 틈이 있을까? “2016년은 여러 가지로 한국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해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전시가 끝나면 프랑스 앙굴렘에 위치한 성당 내부의 오래된 유물을 보관하는 장소를 새롭게 장식하는 프로젝트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에서 200년 전에 순교한 프랑스 성인 피에르 오메트르 Pierre Aumaître의 무릎뼈를 보관하고 있던 한국의 성당에서 이것을 앙굴렘 성당에 기증하면서 시작됐죠.” 오토니엘에게 그 뼈를 보관할 수 있는 상자를 작품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왔고, 이는 곧 유물을 보관하는 장소 전체를 오토니엘의 작품으로 장식하는 데

규모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햇수로 7년의 세월이 걸렸으니 매우 큰 프로젝트다. 오토니엘의 작품이 건축의 규모로까지 이어지는 도전자 현대미술 작가로는 처음으로 앙굴렘의 가장 성스러운 장소를 꾸밀 수 있는 영예기도 하다. 올봄 개막이 예정되어 있다. 오토니엘에게 또 다른 영광과 감동으로 다가올 그날을 생각하니 벌써 마음이 설렌다. 강처럼, 바람처럼, 구름처럼 흘러가는 오토니엘의 길, 마이 웨이. 오랫동안 동행하고 싶은 길이다.